

# 이정애, 유시진 만화에 나타난 망상형 인물과 연애서사 연구

## A Study on the Delusional Characters and Their Narratives of Love in Cartoon Works of Jungae Lee and Shijin Yoo

김혜빈\*, 안상원\*\*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ye-Bin Kim(hyebin7@moi.go.kr)\*, Sang-Won Ahn(ahnsangwon@ewha.ac.kr)\*\*

### 요약

이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두드러지게 활동한 만화가 이정애와 유시진의 작품에 나타난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를 분석한다. 이들 인물의 특징은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현실 논리의 거부, 광기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사랑과 연애가 자기계발의 담론 안에 포섭되고 극적인 파토스를 감정의 낭비로 치부하는 21세기 한국사회뿐 아니라 창작물 속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인물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질서를 거부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 자체에만 집중하는 망상형 인물들이 제시하는 이기심과 파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가 자극하는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을 배반하고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정애는 기독교의 메시아 모티프를 활용해 망상형 인물과 연애서사가 집단화된 강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유시진은 기억을 망각한 망상형 인물이 히스테리적으로 환상에 반응하고 결국 파국을 선택하는 서사를 제시한다. 이 두 서사는 멜로드라마의 연애서사가 삭제한 개인 욕망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 | 망상형 인물 | 순정만화 | 연애서사 | 이정애 | 유시진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narratives of love of “delusional” characters in the works of Jungae Lee and Shijin Yoo, whose cartoon creations were prominent in the 1990s and the early 2000s. Their delusional characters can be characterized by excessive obsession with their objects of love, rejection of realistic logic, madness, and extreme selfishness. They make a type of characters whose traces have disappeared not only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where love and dating are included in the discourse of self-development and dramatic pathos is regarded as the waste of feelings, but also in creative works. It is still, however,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selfishness and collapse of those delusional characters that reject the order of the world and focus only on their love because they make the audience betray the sentimentality of melodramas stimulated by the popular culture and reconsider the concept of “love” itself. While Jungae Lee displays the progress of delusional characters and their narratives of love toward collectivized compulsion with the Messiah motif of Christianity, Shijin Yoo presents a narrative of delusional characters with lost memories reacting to hysterical fantasies and eventually choosing their collapse. Their two narrativ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opose the archetype of personal desire eliminated by the narratives of love in melodramas.

■ keyword : | Delusional Character | Romance Comics | Narratives of Love | Junage Lee | Shijin Yoo |

##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정애, 유시진의 순정만화 인물들의 연애서사를 분석하는 데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활동한 두 사람은 소녀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순정만화의 작가로, 대표 작품으로 전자는 장편 <열왕대전기>, 후자는 중단편 <마니>, <신명기>, <클로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순정만화는 10대~20대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면서 수용자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다루어 왔다. 사랑과 우정, 미래와 여성으로서의 삶을 고민하는 순정만화의 내러티브는 ‘일상적인 인간의 현실(everyday human reality)’을 초점화하고 감정과 분위기, 상황 등을 치밀하게 살피는 일본 쇼조망가(少女漫畫; 소녀만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1]. 50년대 김정과의 <흰 구름 가는 곳>이나 한성학의 <영원한 중>에서 시작되는 한국 순정만화는 60년대 엄희자가 소녀만화의 미형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순정만화 특유의 감성적인 그림체를 유형화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만화 초기에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애상적이고 감각적인 내용으로 소녀독자를 자극하는 작품을 순정만화로 분류하곤 한다[2].

이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만화잡지와 전문화된 만화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순정만화의 지변은 넓어졌다. 80년대 초반에 데뷔한 작가들이 구축한 세계관은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성과를 자랑한다. 황미나, 강경옥, 김혜린, 김진, 신일숙 등으로 대표되는 작가들은 순정만화에서 역사와 정치 신화 등을 서사와 결합시키며 대서사시적 서사가 가능함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여 학원물만이 아닌 SF, 퇴마, 호러, 역사 등 장르를 다양하게 확장하였다[3]. 이 외에 한승원, 이미라로 대표되는 작가들은 중간자적 위치에서 10대 소녀의 로맨스로 표상된 순정만화의 맥을 이었으며 이은혜, 원수연으로 대표되는 작가들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의 ‘도시적 감수성’을 작품에 담음으로써 독자의 시대를 재현하고, 독자의 대리자적 욕망에 현실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선배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이정애와 유시진 또한 군부 혹은 학교를 무대로 하는 세계관을

공들여 구축하고, 설화와 신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순정만화의 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의 감정과 관계에 주목하는 소녀만화와 순정만화 공통의 특성상 애정서사는 만화의 주 내러티브로 작용한다. 비현실적이고 거대하며 인위적인 세계이든, 현실적인 일상의 세계이든 사랑을 갈구하는 여주인공이 있으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로맨틱 코미디나 멜랑콜리한 드라마로 그려진다. 즉 순정만화는 서사와 표현 방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수용자에게 낭만적 사랑에 대한 대리만족을 주는 것이다[4]. 특히 대상에 대한 맹목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격렬한 애정의 표현은 로망과 대서사의 결합을 언급한 요네자와 요시히로(米澤 嘉博)의 지적뿐 아니라[5], 순정만화를 정의하는 단어 ‘순정(純情)’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애국담론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용어 ‘순정’은 순결함과 연약함, 섬세함과 순수성, 그리고 맹목성을 환기했기 때문이다[6].

만화 외에 드라마와 영화 등의 작품에서도 ‘순정’의 요소가 나타나나, 기본적으로 작가 1인의 고유한 창작품인 만화와는 달리 드라마나 영화 내 세계와 인물은 상업적인 논리에 제한을 더 많이 받는다. 영상 구현의 기술력과 제작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독립영화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만 만화만큼 시각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만화는 21세기 한국의 고등학생의 일상과 원시 지구부터 먼 우주 속의 사랑과 대결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되, 동일한 제작비(작가의 노력과 비용)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이정애, 유시진의 작품 속 캐릭터가 작가의 의지대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인물 형으로 탄생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이며, 만화가 창작물로서 가지는 큰 이점이기도 하다.

이정애와 유시진의 작품 <열왕대전기>와 <클로저>에서도 애정은 상당히 중요한 모티프이나 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작용한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왜 두 작품 속 인물의 맹목성은 사회적 규율을 뛰어넘어 자신과 상대 모두를 망가뜨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가?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세계를 끝간 데 없이 몰아가는 거대서사 내 ‘초과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등장인물들은 주저 없이 상대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상대와 자신을 둘러싼 세계마저 삭제한다. 성별과 연령, 세계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극단적이고 직선적인 애정과 욕망의 전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순정만화 속 멜로드라마의 주 문법인 고난을 이기는 사랑, 운명적인 사랑을 경유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헌신과 배려를 보여 줌으로써 인물들이 맞이하는 행복한 결말이나 불행한 결말의 낭만성과 감상성이라는 공식을 균열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감상성을 뛰어넘는 낯설고 폭력성, 그리고 초과적인 절대성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회귀한다.

또한 이들 이후 동료 및 후배작가들에게서는 더 이상 자기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인물유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나예리나 박희정, 김은희와 박은아의 경우 호흡이 짧은 단편을 중심으로 작품을 주로 전개하였으며 사회에서 금기하는 인물 간의 애정 서사도 있었으나 그 진행 양상은 온건했으며,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독특한 세계관을 창조한 권교정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큰 범위 안에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기혜의 경우 서사성이 탈각되었다. 위의 낯선 애정서사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이들에게서도 비슷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크레이지 러브 스토리>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티>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과격적인 양태를 그렸던 이빈은 <안녕 자두야>와 같은 어린이 만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서문다미, 김영희와 한혜연, 김숙의 경우 로맨틱 코미디가 담긴 일상물과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거대서사 사이의 작품 편차가 크다. 상대적으로 젊은 만화 작가 중 활발하게 활동하는 윤지운의 경우 단편적으로나마 초과적 애정서사를 그리고 있으나 주된 성향은 20대 초중반 여성의 '연애'와 '자아 찾기'에 가깝다.

낭만적 연애가 근대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애와 결혼을 주로 다루던 순정만화의 문법에서 이징애와 유지진 작품의 인물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보이는 이기심과 광기 어린 집착, 성장에 대한 거부, 자기 파괴성 등 사랑의 부정성을 극단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은 흥미로운 재독(再讀)의 대상이 된다. 사랑과 연애가 자기계발의 담론 안에 포섭되면서 사랑의 긍정성이

과도하게 집착하고, '썸'으로 명명되는 사랑의 유희성이 익숙해진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징애와 유지진 만화의 인물들은 그러한 과장과 부재(결핍)의 논리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장르의 특성을 뛰어넘는 더 극단적인 양태를 보여준다. 각 작품 속 인물이 보여주는 연애서사의 주된 특징은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광기, 극단적인 이기심 등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헌신이나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감상성,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라는 기대지평을 비껴난다. 따라서 현실논리를 거부하고 상대에 대한 사랑 자체에만 집중하는 망상형 인물들이 제기하는 이기심과 파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가 자극하는 멜로드라마의 감상성을 배반하고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을 망상형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연애가 작동하는 과정을 연애서사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애서사에서 드러내는 주된 특징을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광기, 극단적인 이기심 등으로 설명한 이후,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가 갖는 정신적, 사회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들 인물형을 살펴봄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태의 친밀성이 삭제한 부정성을 읽어냄으로써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교란한다. 둘째, 망상형 인물들의 사랑서사가 작동하는 방식, 특히 파국으로 치닫는 연애서사의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현재의 사랑서사에서 망상형 인물이 출현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 II. 망상형 인물과 연애서사의 특징

### 1. 망상증의 일반적인 특징

정신병의 일환인 망상증에 철학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프로이트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 금기와 질서를 학습하기 이전 유아는 자신을 길러 주는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가 구분되

지 않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유아는 윤리나 사회질서 등의 금기를 자각하지 못한다. 유아는 자신과 타자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한다. 이것은 현실논리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고유의 논리를 믿는 망상증과 흡사하다.

‘아버지의 법’으로 비유되는 오이디푸스 단계에 진입하면서 유아는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해야 하며 어머니를 대체할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질서를 내면화하면서 욕망을 억압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전(前)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로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 정신병(신경증)이고, 망상은 그 전단계의 증상에 해당한다[7]. 임상자료에서 프로이트는 망상 장애망상과 과대망상을 다룬다. 애정망상의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대망상은 자신의 전능성을 믿고 개인이 마주한 고난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망상증은 개인의 확신이나 신념을 재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 태도를 뜻한다.

프로이트의 뒤를 이어 망상증을 연구한 사람은 루이스 클라인과 자크 라캉이다. 루이스 클라인은 망상을 정신분열의 한 증상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유아는 최초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욕구 충족에 따라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으로 구분하는데, 후자에 대한 두려움(안전의 위협)이 커지는 순간 망상-분열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유아의 불안이 커질수록 좋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안은 무엇인가가 자신을 박해한다는 ‘박해불안’이라는 망상으로 전이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역으로 이상화된 대상에 대한 극도의 집착, 공격적 충동 등을 유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유아가 ‘젖가슴’과 맺는 관계가 유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아는 ‘투사적 동일화’, 곧 자신을 독립된 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상의 상태에 따라 개인의 생각이 변화하는, 비논리적 망상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8].

자크 라캉은 클라인의 논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접근

한다. 그에 따르면 망상은 첫째, 자신이 누군가에게 박해받는다는 ‘피해망상’, 둘째,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는다는 ‘에로토포니아적 망상’, 셋째, 자신이 해석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망상’이라 할 수 있다. 라캉은 망상이 출현하는 이유가 주체의 분열에 기인한다고 본다. 한 개인이 (프로이트의 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법’으로 명명되는 상징계(그리고 실재계)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대상 a를 자신이 아닌 타자 쪽에 위치시켜야 함에도 아버지의 법이 사라질 때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수 없게 된다. 이 사이에서 주체가 붕괴되지 않게 막는 것이 바로 망상이다. 주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망상증 환자의 특징이다. 망상증 환자는 자신이 진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현실이라 주장한다[9]. 망상증 환자의 기억이나 시공간적인 직관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으며, 세계를 정상인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애정) 대상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10].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망상증 환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첫째, 망상증 환자는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자신은 전능하다고 생각하며 인간관계를 비롯해 사회적 교류에는 무관심하다. 자신의 논리와 질서가 세계의 질서를 압도하는 것이다. 흔히 에로 풍차를 거대한 적으로 인식하고 달려간 돈키호테[11]를 들 수 있는데, 돈키호테의 눈에 보이는 환상은 그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환상은 돈키호테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망상증 환자는 현실논리를 초월하는 자신의 법에 좌우된다.

둘째로 망상증 환자는 상대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 결과 애정대상에게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형태의 사랑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친밀성’이라는 감정이 사회윤리적 질서와 상호간의 합의 하에 적정 수준에서 조정되는 것과 달리, 망상증 환자의 친밀성은 적정선을 초과하는 형태로 표출된다. 폭력 혹은 죽음에 이르는

과국 역시 초과된 친밀성의 결과에 포함된다 하겠다.

## 2. 이정애, 유시진 작품에 등장하는 망상형 인물

이정애의 <열왕대전기>와 유시진의 <폐쇄자>의 망상형 인물은 애정대상에게 보이는 친밀성의 초과가 과국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초과된 친밀성이 작동하는 방식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첫째, <열왕대전기>의 인물들은 전능한 존재로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주인공 개토와 이스라엘, 키엘은 천재들만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주목받는다. 개토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은 개토를 사랑하지만 중요하게 되는 천재, 키엘은 메시아에 대적하고 인류를 보호하는 마이트레야로 등장한다. <폐쇄자>의 경우 주인공 쿤과 히이사는 한 세계를 열고 닫을 정도로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이며 ‘키퍼(keeper)’ 혹은 ‘클로저(closer)’로 존재한다. 초월적인 이들이 활동하는 세계의 비현실성은 인물들의 전능성을 전제로 하는 망상과 관계가 있다.

둘째, 망상형 인물이 스스로의 전능성을 인식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에게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친밀성의 초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친밀성의 초과는 사랑대상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상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멜로드라마에서도 사랑대상을 특별한 존재로 그린다. 운명적인 만남, 우연의 반복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사랑대상을 과대평가하고 자아를 과소평가하는[12] 일반적인 멜로드라마와는 달리, 망상형 인물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선행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랑대상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은 개토를 자신의 메시아로 설정하고 키엘은 개토를 단 하나밖에 없는 적수로 상정한다. 쿤은 산카를, 히이사는 쿤을 단 한 명의 대체 불가능한 애정대상으로 설정한다.

셋째, 위의 두 특징에서 파생된 결과로, 인물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다. 절대적인 존재로서 이들은 윤리나 도덕을 무시하며, 이 과정에서 친밀성의 초과는 폭력적으로 재현된다. 두 작품에서 인물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랑을 관철할 뿐이다. 그 결과 그들의 사랑은 섬뜩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무질서와 교란, 재난과 공포로서 불쾌[13]를 초래하는 숭고[14]로 설명할 수 있다. 키엘과 개토는 서로의 목숨을 취하는 전쟁을 벌이며 살인을 불사한다. 개토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역시 개토를 처단하기 위하여 기존에 가졌던 신념에 반하는 비도덕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을 한다. 히이사와 쿤도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 히이사는 쿤에게, 쿤은 죽은 자신의 첫사랑 산카에 집착하면서 살인을 비롯할 뿐 아니라 한 세계를 멸망시키기까지 한다. 자신들의 법이 일상의 질서와 윤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출산으로 보증되는 이성애적 관계 또한 의미가 없다. 개토를 사랑하고 중요하는 이스라엘, 메시아로서의 개토를 막으려 하며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키엘은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또는 무조건적이거나 전략적인 동성에 관계를 유지한다. 쿤과 히이사 또한 각자 남성의 성별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열고 닫으면서 다른 육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적 관계를 초월한다.

다음 장에서는 전술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망상형 인물들의 연애서사를 분석한다.

## 3. 망상형 인물들의 연애서사의 두 유형

### 3.1 강박의 집단화와 구원의 거부 - <열왕대전기>의 이스라엘과 키엘

이정애의 <열왕대전기(列王大戰記)>(1993~1998 잡지 <터치>, <이슈> 연재, 총 14권 미완결)는 천재들만 입학할 수 있는 영재학교 ‘크로스 유니온’에 ‘강개토’라는 한국계 소년이 기부금으로 입학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과 성격, 재능을 가진 천재 학생들 중에서 평범한 소년으로만 여겨졌던 ‘강개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이 밝혀진다. 이에 대항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길러진 학생회장 ‘키엘 헤머슈타인’이 등장하고, 간질을 앓는 천재 옆세주의 자 ‘이스라엘’은 크로스 유니온의 학생회장으로 개토에 의해 구원받으며 그를 보호하고자 나선다. 이 외에도 초능력을 가진 음악 천재 ‘쇼너’ 등의 주변인들도 모두

각자의 운명에 의해 인류의 구원과 파괴라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다.

<열왕대전기>는 기독교 모티프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면서 망상형 인물의 전능성을 전유한다. 창세기를 직접 인용할 뿐 아니라, 제목에서 구약성서의 열왕기서를 환기하며, ‘메시아’와 ‘크로스 유니온’이라는 명사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토는 광개토대왕의 이름을 의식해 지어진 것으로, 그가 크로스 유니온 교정 부지에 입 맞추는 행위는 교황의 키스를 환기하며 땅-지구-세계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환유한다. 이런 세계관은 아가페로서의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의 절대성을 자연스럽게 독자에게 인지시키는데, 그 결과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추종, 인물들 사이에서 전염되는 무(無)목적적이고 광기 어린 사랑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작품 속 세계관과 배경만큼이나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인물들, 곧 국적과 성격, 재능이 제각각인 인물들이 사회의 질서나 통념을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다음으로 인물들은 자기 목적에 충실한 채 이기적이고 강력한, 초과된 친밀성을 드러내는 사랑을 한다. 앞선 기독교 모티프는 이 부분에서도 적절하게 활용된다. 신이 제공하는 사랑의 절대성과 숭고함만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보이는 무조건적인 애정과 신뢰, 구원에 대한 확신이 광기 어린, 강력한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망상형 인물의 강박증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구체화된다. 라강은 강박증적 주체는 주인으로 명명되는 대타자가 상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인의 의미를 확장하고 스스로 노예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한다[15]. 다시 말해 강박증은 주체(텍스트의 등장인물, 특히 주인공)가 행동의 원인이자 목적이 되는 인물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를 끊임없이 자신을 지배하는 대상으로 둠으로써 마조히즘적인 기쁨을 누리는 상태와 관계 있다.

이스라엘이 개토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자신을 죽음과도 같은 심연에서 구원한 데서 시작된다. 반면 키엘은 죽음보다 강한 증오를 표출함으로써 강력하게 개

토에게 묶이는데, 이스라엘이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사랑의 기호라면, 키엘은 그 반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키엘과 이스라엘의 증오 또는 애정은 개토와의 갈등과 긴장이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스라엘은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점에서, 키엘은 적대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개토는 끊임없이 텅 빈 기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사랑이나 증오의 대상인 개토가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작품 안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작품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아 준 사람이 개토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키엘은 태어날 때부터 적그리스도(메시아의 대항파)인 마이트레야로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일 뿐이다. 작품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증오로 개토를 대하며, 그 사랑/증오를 이루려는 노력 대신 끝없이 그 사랑/증오를 유지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키엘을 비롯한 반(反)메시아 집단의 계략에 의해 개토로 변장한 가짜 메시아의 확신을 목격하고, 개토/메시아에 대해 극단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의심과 증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개토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학자 체질인 그가 육체를 단련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신념을 더 큰 신념(사랑) 아래 복속시키면서 얻는 고통은 역으로 개토에 대한 사랑을 단념시키는 커녕 더 강력하게 만든다. 키엘 역시 마찬가지이다. 마이트레야가 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그는 자신의 의무를 부담스러워하고 평범한 인생을 소망한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키엘은 괴로움 또한 개토에 대한 강력한 증오-애정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마이트레야로 거듭나는 동인으로 변환시킨다. 이것은 망상형 인물이 보여 주는 증상이 강박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 준다. 강박증 환자가 대상의 노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역으로 마조히즘적 기쁨을 유지하는 것처럼, 고통은 애정 혹은 증오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게 한다.

더 나아가 맹목성과 초과된 감정, 곧 애정과 증오는 광기가 전염되는 것처럼 확산, 복제된다. 이스라엘이 이

끄는 메시아 과와 키엘이 이끄는 마이트레야 과의 전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물에 동의하는 집단이 필요하다. 메시아인 강개토에 반(反)하는 집단의 동력은 적색기사단의 수장인 키엘과 햅본 트러스트의 수장이 될 이스라엘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아낌없는 애정이다. 햅터와 한스 요아힘은 마이트레야가 된 키엘에게 매혹되어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햅본 트러스트 용병인 기네스 야나츠크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유 없이 매혹되어 맹목적인 사랑으로 헌신한다. 개토를 축으로 한 이스라엘과 키엘의 관계가 복제되는 것이다. 순정만화 특유의 화풍을 강조하듯 떨리는 입술과 눈물 고인 눈동자 혹은 감은 눈과 상기된 뺨이 10대 소년집단 안에서 동일화되면서 크로스 유니온 내의 동성애적 관계는 연쇄적으로 확산, 유지된다. 종교적인 열정이 파토스를 공유하며 강화되고, 강박증적인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인물 집단의 갈등은 그래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대립과 희생이 이어지면서 개토, 이스라엘, 키엘,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집단 모두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저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이들의 사랑은 헌신과 배려와는 관계없는 광기, 그리고 망상의 소산이다. 그 과정에서 사랑대상이 그것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망상의 특징과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일방적인 사랑, 친밀성의 초과와 그 결과 초래되는 파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멜로드라마가 제기하는 1:1의 독점적인 연애관계는 상상 성(性) 혹은 친밀성이라는 감정과 자본을 정해진 상대와 ‘주고 받는’, 거래되는 에로스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주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래’라는 조건을 초과함으로써 사랑의 부정성, 곧 맹목성과 강력한 영향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3.2 기억 은폐의 연쇄와 파국의 수용 - 〈폐쇄자〉의 쿤과 히이사

유시진의 <폐쇄자(closer)>(1999~2000, <나인> 연재, 단행본 2권 완결)의 독특한 설정은 한 세계를 유지하고 달을 수 있는 존재(키퍼/클로저)가 있다는 점이다. 키퍼는 특별한 표식을 타고 나며, 그 표식을 지닌 키퍼

가 죽으면 세계도 파멸한다. 그래서 키퍼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죽기 전에는 표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이 한 세계를 창조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설정은 자아의 전능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현실논리를 무시하는 망상증으로 읽을 수 있다.

자아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 외에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의 특징은 자기 사랑에만 충실한, 이기적일 정도로 맹목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폐쇄자>에서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은 두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두 등장인물 쿤과 히이사는 각각 키퍼/키퍼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히이사는 쿤을, 쿤은 이미 죽고 사라진 산카를 열망하면서 상대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애정을 이루려는 목적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사랑하는 대상에만 몰두하고 세계가 규정한 질서를 거부한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중국에는 자기 파괴에 이르는 자기중심성, 질서에 대한 거부, 금기에 대한 열망은 앞서 언급한 망상형 인물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더 나아가 폭력적인 사랑 서사의 또 다른 모습은 초과된 친밀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물들 사이에서 친밀성의 초과는 가장 내밀한 ‘기억’을 공유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한 사람은 상대의 기억을 낱알이 읽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기억을 완전히 보여 주며 그것을 왜곡하게 만든다. 둘 사이의 비밀이 사라진 인물들은 서로의 거리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폭력적인 사랑의 서사가 기억의 은폐 및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히스테리적으로 반복한다는 것, 결국 그 사랑이 파국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쿤은 히이사가 자신의 연인 산카를 죽였고 그 충격으로 자신이 한 세계를 단았다는 것을 잊고자 도망치고, 히이사는 쿤이 기억을 은폐하는 것을 돕는다. 쿤에게 가짜 기억을 삽입하고 쿤을 추적하는 사자들을 죽인 후 함께 새로운 세계로 도망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첫 번째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두 번째 세상에서는 형과 아우,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는 친구 관계를 유지

한다. 곧 기억의 은폐(망각)=새로운 세계라 할 수 있으나 이 세계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산카의 죽음을 환기하는 날개 꺾인 새의 환상을 보는 순간 쿤이 망각된 기억을 되찾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외상)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그것을 망각하려 하지만 억압된 무의식이 회귀하면서 망각은 새로운 증상을 동반한다. 곧 외상이 다른 증상, 곧 망각과 환상으로 재귀하는 히스테리라 할 수 있다[16].

히스테리는 진정한 욕망을 은폐한 채 증상으로 가짜 욕망을 드러낸다. 쿤의 경우 진정한 욕망은 죽은 산카와 똑같이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그가 죽음을 욕망하지 않았다면 산카를 죽인 히이사를 죽였을 것이나 그는 히이사를 죽이는 대신 그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은폐하고 자신의 표식을 넘기려고 한다. 키퍼의 얼굴에는 표식이 남아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엠버에서는 사랑도 죽음도 이룰 수 없다. 표식을 넘기지 않으면 히이사를 비롯해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쿤은 그저 산카를 사랑하는 쿤이 되고 싶었으나, 산카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키퍼/클로저였으며 결국 그게 자신이라고 고백한다. 그리하여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쿤이자 키퍼/클로저 모두를 죽이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시도가 허투로 돌아가자, 쿤은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해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린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세상에서 소멸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결과 쿤의 죽음과 함께 히이사를 포함하여 표식에 얽힌 세계는 모두 사라진다. 쿤과 쿤을 사랑하는 히이사, 그리고 그들과 아무 상관 없는 한 세계의 모든 이들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부자, 형제, 친구 등의 몸-관계 바꾸기로 드러나는 망각의 연쇄, 곧 히스테리적인 증상은 역으로 좌절된 욕망의 정도를 드러냄으로써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려는 의도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이는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는 에로스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치닫는 강력한 타나토스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몸 바꾸기와 세계 바꾸기, 마지막으로 기억의 은폐를 도와주는 히이사의 연애서사는 쿤에 대한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 상대방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환상을 조작하는 히이사는 매번 쿤이 환상에서 미끄러져 나

오면서 욕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한다. 그럼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으며 쿤의 망각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꾼다. 어디엔가 있는 세계로 가서 가짜 기억을 집어넣으며, 쿤 안의 표식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사자를 위협하고 키퍼로 다시 깨어난 쿤에게 다시 다른 세계로 가자고 말하는 것 또한 히이사다. 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이성적이고 덜 자기파괴적으로 보이는 히이사이지만 그 역시 사랑을 이루려는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이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은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국’을 초래한다. 히이사는 자기 행위가 불러 올 결과를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쿤의 의지를 존중하고 함께 죽어버리는 것 또한 헌신이나 배려가 아니다. 히이사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이사는 쿤을 사랑하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는 ‘절대(絶對)명령’ 또는 ‘숙명(宿命)’이라고 대답한다. 현실논리를 벗어난 채 자기 내면의 명령에 충실한 히이사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광기 어린 인물이며, 자신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 자신이 상대에게 부여한 의미가 거대하여, 상대(속에 부여한 자신의 의미)가 세계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망상형 인물의 특징과 부합하며, 그들의 연애서사를 그대로 드러낸다. 결국 그가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방법은 쿤과 함께 죽는 것이었다. 쿤이 이 세계를 유지한 채 스스로만 지우기 위해 표식을 넘기려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는 세계이기에 세상을 파괴한다. 히이사와 쿤이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세계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세계를 거부하는 이들은 지극히 유아적인, 망상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폐쇄자>의 두 인물은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들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이기성의 정점은 창작물, 특히 만화 속 세계 안에서만 주인공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한다. 행동의 결과가 낳을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저돌성과 과국을 수용하는 초연한 모습은 창작물의 세계이기에, 그 행동의 무책임함과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숭고함이 있다.



### III. 결론 및 제언

#### 1. 재맥락화되는 망상형 인물의 특징

지금까지 <열왕대전기>와 <폐쇄자>에 나타난 망상형 인물들의 애정서사를 살펴보았다. 현실 세계 속 사람들은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이나 특별한 이상과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태어난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 자아를 예절과 복종으로 감싼 채 사회화된 인물로 살아간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집요하고 은밀하게, 합법적이고 온건하게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창작물 내 세계의 캐릭터인 이스라엘과 키엘, 쿤과 히이사는 추구하는 바를 맹렬히, 때로는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으로 추구한다. 만화 속 독특한 세계관만큼이나 비현실적이며 때로는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강박적이며, 파국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망상형 인물들의 극단적인 이기성, 그리고 부정성은 분명 일상 논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인간을 '성숙'시키는 통로라는 미명 하에, 가장 낮은 타자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자기계발의 통로로 활용되는 후기 근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썸'과 '가상결혼'이 감정의 낭비를 거부하는 대안적인 연애, 곧 한병철이 언급한 후기근대사회의 에로스가 탈각된 애정서사이자 소비되는 사랑의 형태로 등극한[17]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는 과도한 감정을 유도하고 피로감을 자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형 인물들이 제공하는 사랑의 낮은 문법은 정상성의 영역을 초과하는 연애서사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연애서사를 통해 기존에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연애서사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현실의 연애 혹은 문화텍스트로서 멜로 드라마가 안정성을 담보로 친밀성, 곧 성과 자본을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사랑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연애서사의 기본 문법을 교란한다. 낭만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남녀의 안정적인 사랑은 한 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18]. 미성숙한 남녀가 연애와 결혼을 통해 사회의 시민이자 가자/아내로 새로운 역할

을 부여받는 것이 그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성숙으로 명명하지만, 이 삶은 금기와 자유에 대한 욕망을 삭제시키고 특정한 역할에 자신을 고정시킬 것을 요구받는 삶이다. 사랑과 결혼을 지나면 성역할과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고 상징계적 질서 안에 개인의 무의식과 충동을 갈무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망상형 인물의 특징은 재맥락화된다. 오이디푸스단계에 진입하는 데 실패한 망상형 인물은 상징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성장과 성숙에 반한다. 금기가 없으므로 모든 가능성과 자유가 주어지고 무책임하고 맹목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유아적인 맹목성과 무책임함, 그리고 어리석음은 현실논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불쾌의 영역을 자극하며 원초적인 미감을 제시한다. 이들이 자아내는 극적인 파토스는 불쾌너머에 숨은 독자들의 독서욕망, 곧 낯센에 대한 매혹, 현실논리에 삭제된 충동의 대리만족 등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신의 시점에서 세상을 철저히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세계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망상형 인물, 그리고 절대적이고 불가능한 무언가를 열망하다가 파국으로 치닫는 인물들에 대한 매혹은 탈각된 에로스에 대한 피로함, 그리고 사랑의 '낯센'에 대한 욕망을 반증할 수 있다.

#### 2. 반성장 연애서사의 불/가능성 및 망상형 인물형의 가치

그렇다면 이 반성장 연애서사가 갈수록 등장하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순정만화와, 출판물보다 독자 노출과 구독에서 우위를 점하는 웹툰 양쪽에서 모두 반성장 연애서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정애의 <열왕대전기>가 잡지의 폐간과 고료문제로 연재중단에 이른 것은 현실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성장 연애서사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상품가치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슬라보예 지젝의 지적처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가 문화를 추동하는 자극원이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명령이 지배하는 사회이다[19]. 욕망을 이루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일상화된 삶에서 사랑의 부정성, 낯섦, 파토스는 현실 영역에서 점차 탈각되며 생경한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사회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망상형 인물이 창작물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 곧 연애서사 내에서 망상형 인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창작물은 사회적 금기 아래 억압된 인간성의 다양한 결을 재현한다. 작품 안에서 그려지는 오욕칠정의 폭넓음, 주저 없이 그것에 매혹되는 인물의 순수한 광기는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인간성의 다양함을 예상하게 하고, 이런 삶의 풍경을 일상의 영역에서도 이해할 힘을 제공한다. 푸코는 금기를 위반하는 수많은 시도를 ‘비정상성’으로 규정하고 축출함으로써 그것을 상상할 여지를 삭제하는 신경증적 태도가 역설적으로 광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20]. ‘정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기본 문법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사랑의 서사를 상상할 여지를 빼앗는 것 역시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좁게 만듦으로써 내면의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애서사 자체에 내재한 망상형 인물의 가능성을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연애서사는 낯선 개인과 개인이 만남으로써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한 사람이 누구보다 특별해지는 강력한 경험은 연애서사에서 누릴 수 있는 보편자를 특수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험으로, 자신과 상대를 세계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망상증을 경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애서사는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자신과의 마주침을 제공한다. 광기와 집착, 두려움과 불안, 강력한 애정과 분노 등을 통해 자기 안의 타자성과 타인 안의 익숙함을 배우는 연애서사의 생동감은 그래서 여전히 한국사회에 중요한 서사로 자리매김한다.

문학과 드라마, 만화와 같이 서사가 있는 창작물이 독자와 시청자, 열람자에게 주는 것은 현실에 대한 환기와 재구성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된다. 창작물이 창작물 소비자에게 주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망상형 인물의

연애서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서사를 통해 더 강력하게 환기하게 된다. 모니터로 열람하는 웹툰이 아닌, 인쇄물로 출판된 순정만화라는 시대적이고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연애서사의 강력한 환기력은 여전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 연구는 이정애와 유시진의 만화 속 망상형 인물과 연애서사를 살펴봄으로써 낭만적 연애에 익숙한 애정 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연애서사를 정의하고 연애담론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이후의 작업은 연애담론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인물형 및 서사의 소재를 연구하는 후속연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노수인, *한국 순정만화와 일본 소녀만화의 관계 연구(순정만화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2] 김소원, “초기 순정만화와 소녀만화의 스토리 형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109-118, 2015.
- [3] 이선영, 이승진, “순정만화의 장르 세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제11권, 제5호, pp.248-265, 2015.
- [4] 광선영, “여성장르로서의 순정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수용자 분석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5호, pp.237-269, 2001.
- [5] 米澤 嘉博, *戦後少女マンガ史(ちくま文庫)*, 文庫, 2007.
- [6] 서은영, “‘순정’ 장르의 성립과 순정만화,” *대중서사연구*, 제37권, pp.147-177, 2015.
- [7]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욕망이론*,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옮김, 문예출판사, 1994.
- [8] 박선영, “생후 초기 주체의 심리 구조화에 관한 연구 : 클라인의 망상-분열적 위치와 빅의 피부이론을 중심으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7권, 제1호, pp.29-59, 2005.

- [9] 맹정현, *리비돌로지 - 라캉 정신분석의 쟁점들*, 문학과지성사, pp.31-59, 2009.
- [10] 홍준기, “살바도르 달리 회화의 비판적-망상증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과현실*, 제86호, pp.279-292, 2010.
- [11] 박현경, “『돈키호테』와 『햄릿』에 나타난 영웅적 꿈과 광기의 욕망충족,” *영어 영문학*, 제58권, 제5호, pp.839-858, 2012.
-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김정일 옮김, 열린책들, 2014.
- [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 [14] 임마누엘 칸트, *판단력 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9
- [15] 홍준기,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과 라캉 : 강박증 임상,”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제9권, 제2호, pp.109-145, 2007.
- [16]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 강의*, 임홍빈, 홍혜경 옮김, pp.387-388, 2003.
- [17] 한병철, *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5.
- [18] 재클린 사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옮김, 민음사, 1985.
- [19] 슬라보예 지젝, *당신의 정후 즐거라! : 할리우드의 정신분석*, 주은우 옮김, 한나래, 1997.
- [20]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이규현 옮김, 나남, 2003.

저 자 소 개

김 혜 빈(Hye-Bin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미디어학(문학박사)
  - 2016년 7월 ~ 현재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KBS미디어 콘텐츠기획부 BM
  - 2013년 2월 ~ 2013년 12월 : 한국과학창의재단 위촉연구원
  - 2008년 4월 ~ 2010년 9월 : 네오위즈게임즈 PM
- <관심분야> : SNS, 게임, 만화, 개인 방송

안 상 원(Sang-Won Ahn)

정회원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2008년 8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외래교수
  - 2008년 8월 ~ 2014년 1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현대시, 글쓰기, 수용성, 기억, 문화콘텐츠